2023학년도 예술사과정 신입생 모집
미술원 조형예술과 1차

전 공 실 기

수험번호		성 명		감독관 확인	

(문제) 지퍼백에는 다시마, 밴댕이, 대추, 오징어채, 표고버섯이 들어 있다. 이를 꺼내어 관찰하고 그것의 질감과 양감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표현하시오.

※ 실기시험 재료
3절 켄트지(답안지), 수성펜 3개(검은색), 분무기 1개, 생수 1병,
A4용지 1장(연습용), 종이 타올(공용재료)

※ 주의사항
1. 수험표 스티커가 우측 하단에 위치하도록 화지를 가로로 놓고 사용하시오.
2. 주어진 실기시험 재료만을 사용하고 화지를 훼손하지 마시오.
3. A4용지(1장)는 연습용으로 사용하시오.
4. 모든 재료는 추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지퍼백과 제습제는 그리지 마시오.
6. 생수는 분무기에 넣어 사용하시오.
7. 분무기는 시험 시작 1시간 30분 동안만 사용하시오. (이후 절대 사용 금지)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예술사과정 신입생 모집
미술원 조형예술과 2차

심층실기 (1일차)

관리번호		감독관 확인	

-주어진 재료를 이용하여 가면을 제작하시오.

-A4용지 한 장에 가면의 주요 모티프와 구조, 형태, 재료의 사용 방식을 서술하시오.

K ARTS

***실기시험 재료**
종이죽, 철망, 대나무 살, 한지, 마스킹 테이프, 트레이싱지, 채색 재료(수채)

***보조 재료**
목공풀, 작업용 장갑, 다목적 가위, 분무기, A4용지 5장(답안지 1장, 연습용 4장), 연필, 지우개

***공용 재료**
연필깎이, 물티슈, 종이 타올

※주의사항
1. 수험표 스티커가 합판의 우측 하단에 위치하도록 가로로 놓고 사용하시오.
2. 작품은 합판을 벗어나지 않게 제작하시오.
3. 모든 재료는 추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주어진 재료와 채색 재료(수채) 이외의 개인 재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예술사과정 신입생 모집
미술원 디자인과 1차

전 공 실 기

수험번호		성 명		감독관 확인	

<지문 1>
켄타우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상체는 사람과 같지만 하체는 말의 모습을 한 반인반마의 형상을 한 이를 가리킨다. 상체는 인간의 지성, 하체는 동물의 힘(기능)을 상징한다.

<지문 2>
인공지능 로봇의 자유도와 자율성이 높아짐에 따라 로봇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상황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로봇은 감정을 가지고 사람에게 보복을 하거나, 자신이 다치지 않기 위해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로봇 혹은 프로그램을 인간 중심 세계관에서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기계 혹은 도구로만 봐야 할지는 의문이다.

<지문 3>
워케이션은 '직장, 일'을 뜻하는 영어 단어 워크(Work)와 '휴가'를 뜻하는 베케이션(Vacation)의 합성어이다. 즉, '온라인으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처리하며 휴가를 떠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최근 코로나 (COVID-19) 사태와 더불어 변화한 근무 형태와 관련되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K ARTS

<문제>
위 지문 및 이미지를 참고하여 2030년 워케이션(Workation)의 맥락에서 지성과 기능을 겸비한 로봇이 인간과 공존하는 미래에 대한 콘셉트를 디자인하시오.

<답안지 작성 방법>
- 답안지는 우측 하단에 인적사항 기재란이 오도록 가로로 작성하시오
- 답안지 좌측 하단에 자신의 디자인 콘셉트에 대하여 50자 이내로 설명하시오
- 답안지는 노란 라벨 답안지 한 장만 제출하시오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및 지문 참고 : 구글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예술사과정 신입생 모집
미술원 디자인과 2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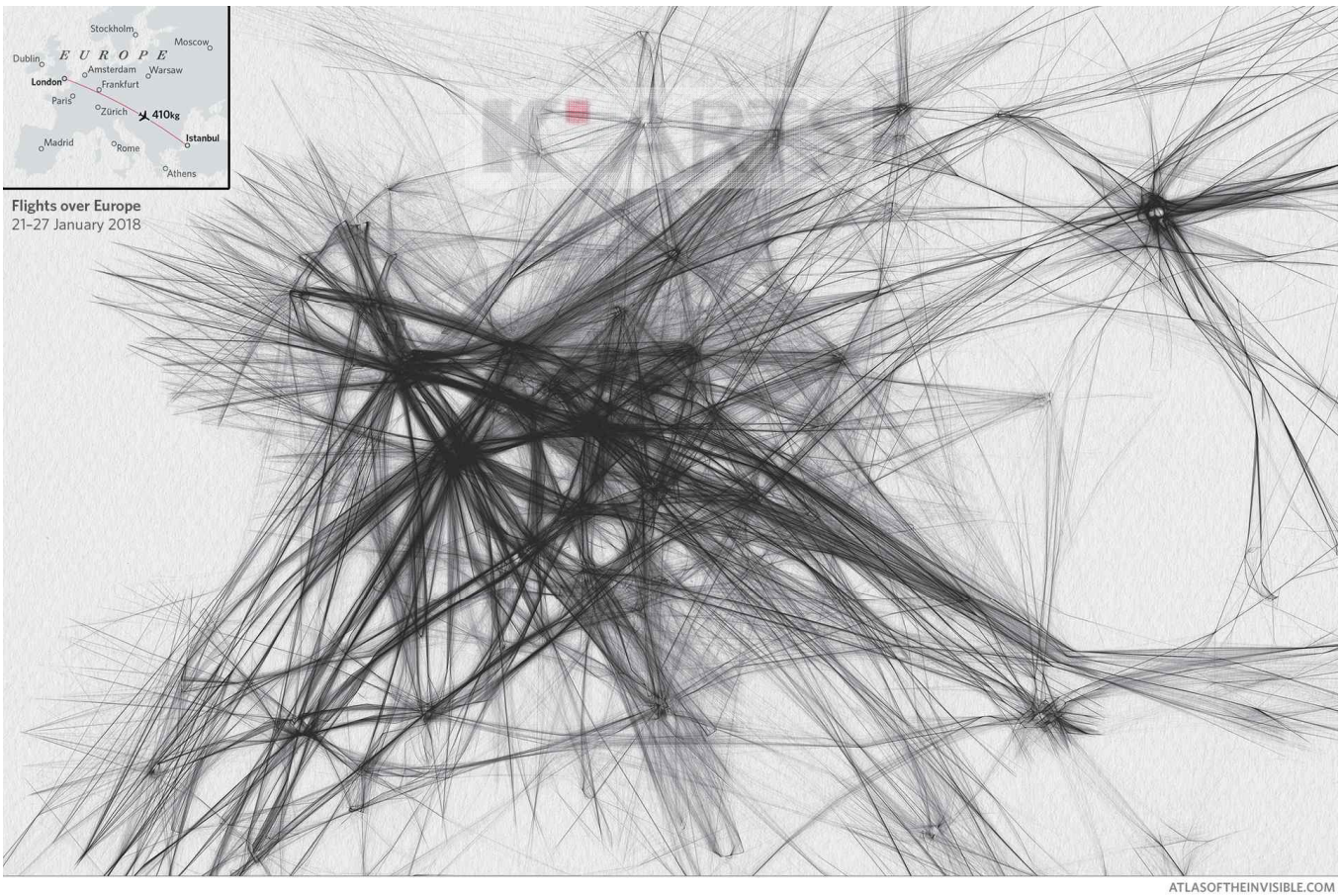
심층실기 (1일차)

관리번호		감독관 확인	

발상-공감각적 변환

[지문]

'문해력', 말 그대로 문자를 해석하고 그것을 나에게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해진 시대다. 하지만 영상화된 자료와 시각화된 자료가 텍스트보다 더 눈을 끄는 이 시대에 시각 자료를 해석하는 힘 또한 중요해졌다. 시각 자료야말로 현혹되기 쉬운 정보이며, 빅데이터로 포장된 각종 수치들 또한 객관성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눈을 가린다. 시각화된 자료와 지리학이 만났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동의 흐름과 방향, 즉 세계의 움직임이다.



비행기 여행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행동이다
사진은 유럽의 일주일 간 오가는 비행기의 탄소배출량을 표현한 지도이다.

<출처 : *Atlas of the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책>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주어진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의 이미지를 분석하여 공감각적으로 표현하시오.
오감 가운데 시각을 제외한 두 개 이상의 감각 혹은 요소 (예: 인물, 연령, 표정, 의상 등)로 변환하여 디자인하시오.
다음의 조건 아래 자신이 변환한 디자인 포인트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반드시 50자 이내의 단문)

[답안지 작성 요령]

- 답안지 A는 가로로 아이디어 스케치 및 개념정리용으로 사용할 것.(12개 이내)
- 답안지 B는 가로로 최종 디자인 결과물을 주어진 재료로 작성할 것.
- 답안지 A, B 두 장을 모두 제출할 것.

			A

B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예술사과정 신입생 모집
미술원 디자인과 2차

심층실기 (2일차)

관리번호		감독관 확인	

표현 - 역동성, 부분 확대, 데포르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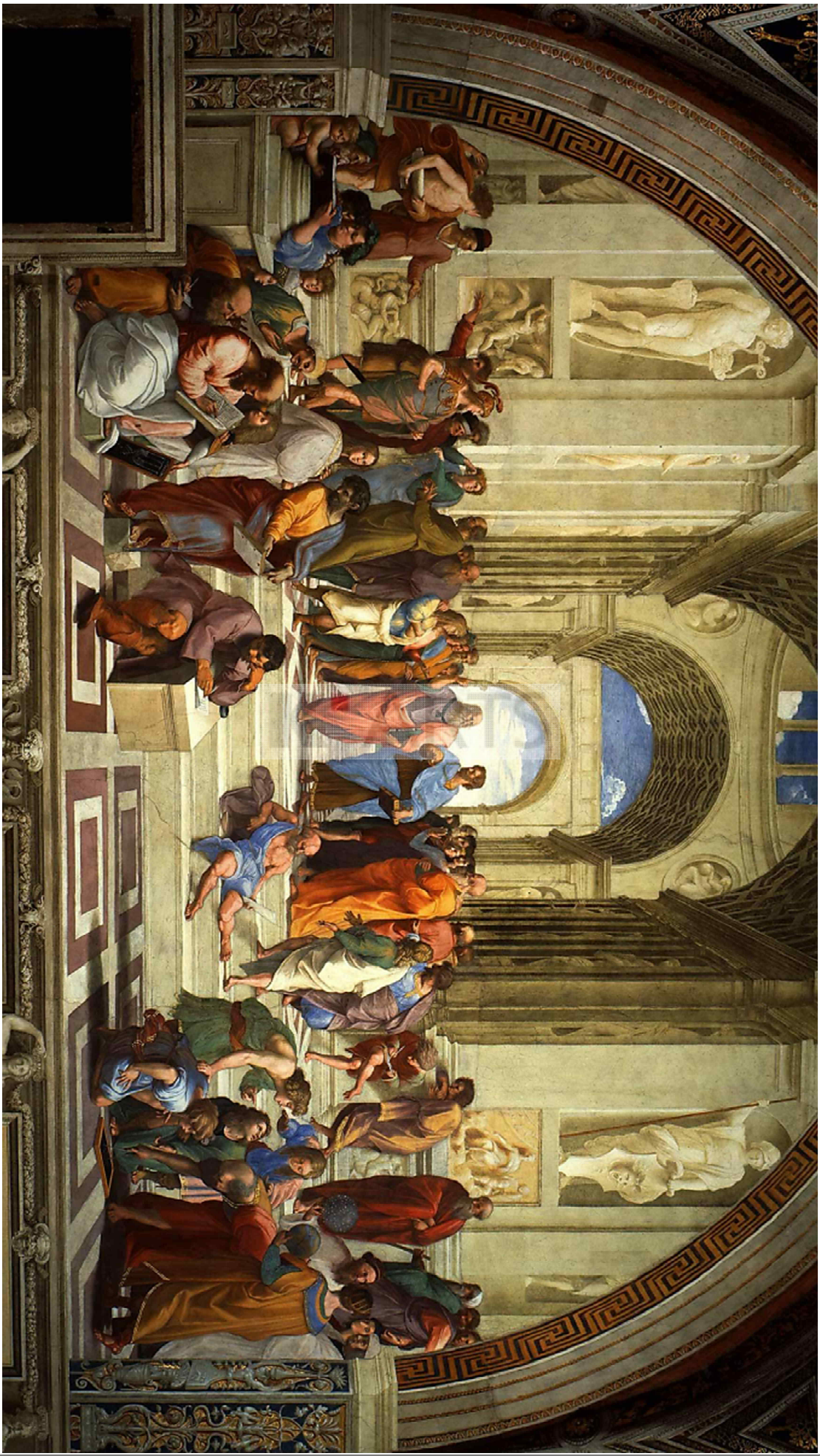
[문제]
제시된 명화는 라파엘로 산치오의 <아테네 학당>이다.
이를 재구성하여 2030년 한예종 디자인과 글로벌 캠퍼스의 한 장면으로 표현하시오.

[조건]
- 주어진 명화 전체를 묘사하지 말고 부분만 크로핑하여 나타낼 것.
- 표현 기법으로는 역동성, 데포르메를 반드시 포함할 것.

[용어 해설]
- 데포르메(deformer): 어떤 대상의 형태가 달라지는 일, 또는 달라지게 하는 기법(변형, 왜곡)을 뜻하는 미술용어.
- 크로핑(cropping): 사진 또는 그림 이미지에서 원하지 않는 외부 영역을 제거하는 기법을 의미하는 미술용어.

[답안지 작성 요령]
- 답안지는 가로로 1장만 제출하시오.
- 반드시 주어진 재료만 사용할 것.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예술사과정 신입생 모집
미술원 디자인과 2차

심층실기 (3일차)

관리번호		감독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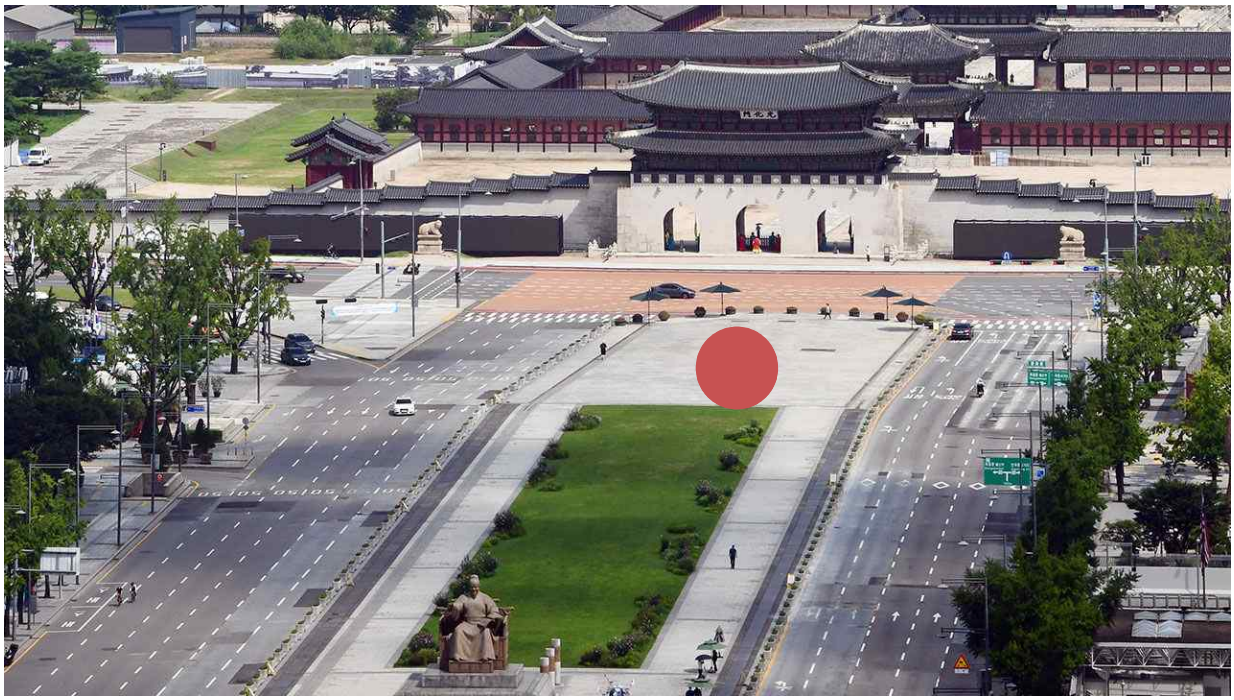
키워드 - 과거, 현재, 미래의 조화 / 제로 웨이스트 / 축척(스케일)

[문제]
광화문 광장에 설치할 크리스마스 상징 조형물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시오.
조형물은 기존 크리스마스 트리의 형식을 반드시 탈피하여 구상하시오.
경복궁의 한옥 건축물(과거), 광화문 광장에 모여드는 사람(현재), IT기술을 활용한 장치(미래)의 조화를 고려하여 디자인하시오.

[조건]
- 조형물을 설치할 공간은 가로 10미터, 세로 10미터, 높이 20미터 이내이다.
- 나무젓가락의 길이를 10미터의 축척으로 상정하고, 나머지 재료로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오브제 및 장식물을 축척에 맞게 연출하시오.
- 주어진 재료는 자신이 원하는 형태나 길이로 가공하여 사용할 것.
- 제로 웨이스트의 콘셉트에 맞춰 조형물 철거 후 리사이클 방안 등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것.

[용어 해설]
- 제로 웨이스트: 모든 제품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책임있는 생산, 소비, 재사용 및 회수를 통해 폐기물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원칙이다

[답안지 작성 요령]
- 답안지는 가로로 놓고 그 위에 디자인한 조형물을 답안지 중앙에 배치할 것.
- 답안지 우측 하단에 자신의 디자인 콘셉트를 100자 이내로 간결하게 서술할 것.
- 반드시 주어진 재료만 사용할 것.



: 조형물 설치 위치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브제 및 장식물 참고 이미지 예시]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예술사과정 신입생 모집

미술원 건축과 1차

수 학

수험번호		성 명		감독관 확인	

I. 선택형 문제 1~7의 답 번호를 답안지에 쓰시오(각 문항 6점).

1. 1이 적힌 카드, 2가 적힌 카드, 3이 적힌 카드, 4가 적힌 카드, 5가 적힌 카드, 6이 적힌 카드가 각각 2장씩 있다. 12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았을 때 뽑힌 카드에 적힌 두 수의 곱이 6의 배수일 확률은?

① $\frac{2}{9}$ ② $\frac{5}{12}$ ③ $\frac{5}{22}$ ④ $\frac{4}{33}$ ⑤ $\frac{29}{66}$

2. 일차함수 $f(x)=ax+b(a\neq 0)$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a^2+b^2의 값은?

K 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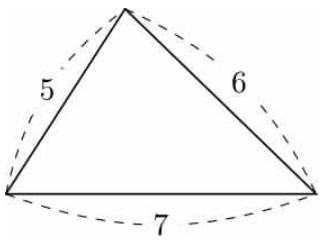
<조 건>

(가) $f(x)$의 역함수 $f^{-1}(x)$에 대하여 $y=f(x)$와 $y=f^{-1}(x)$의 그래프는 적어도 두 개의 서로 다른 점에서 만난다.

(나) 직선 $y=f(x)$와 원점 사이의 거리는 $2\sqrt{2}$이다.

① 1 ② 9 ③ 17 ④ 25 ⑤ 33

3. 세 변의 길이가 5, 6, 7인 삼각형의 내접원과 외접원의 넓이를 각각 s와 S라 하자. 이때 $n<S-s<n+1$인 양의 정수 n의 값은?



① 29 ② 30 ③ 31
④ 32 ⑤ 33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4. 사차방정식 $2x^4+5x^3+x^2+5x+2=0$의 한 실근을 α, 한 허근을 β라 할 때, $\dfrac{\alpha^2\beta+\beta}{\beta^2\alpha+\alpha}$의 값은?

① -6 ② -3 ③ 1 ④ 3 ⑤ 6

5. $\left(\sqrt[3]{a^2}\right)^{\frac{1}{k}}=\sqrt[4]{a^3\left(\sqrt{a^k}\right)^3}$일 때 양의 실수 k의 값은? (단, $a>0$)

① $\frac{1}{4}$ ② $\frac{1}{3}$ ③ $\frac{1}{2}$ ④ $\frac{2}{3}$ ⑤ $\frac{3}{4}$

6. 삼차함수 $f(x)$에 대하여 $f(0)=f(1)=f(2)=3$, $f'(0)+f'(1)+f'(2)=9$가 성립할 때, $f(3)$의 값은?

① 9 ② 12 ③ 15 ④ 18 ⑤ 21

K-ARTS

7.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이차함수 $f(x)$의 최솟값은?

<조 건>

(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3x^2+4x-2\left(\int_0^1 f(t)dt\right)^2$$

이다.

(나) $f(0)>-4$

① $-\frac{11}{3}$ ② $-\frac{10}{3}$ ③ -3 ④ $-\frac{8}{3}$ ⑤ $-\frac{7}{3}$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II. 단답형 문제 8～13의 답을 답안지에 쓰시오(각 문항 7점).

8. n^2-n 이 10^3 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세 자리 자연수 n 의 합을 찾으시오.

9. 집합 $X=\{1,\ 2,\ 3,\ 4,\ 5,\ 6,\ 7\}$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X의 부분집합 A, B의 순서쌍 (A, B)의 개수를 찾으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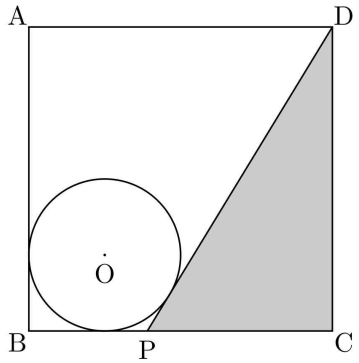
<조 건>

(가) $A \subset B \subset X$

(나) $3 \in A$이고 $7 \notin B$이다.

K ARTS

10.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O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ABCD의 두 변 AB, BC와 접한다. 변 BC 위의 점 P에 대하여 선분 DP가 원 O에 접할 때, 직각삼각형 PCD의 넓이를 찾으시오.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11. 삼차함수 $f(x)=x^3+ax+1$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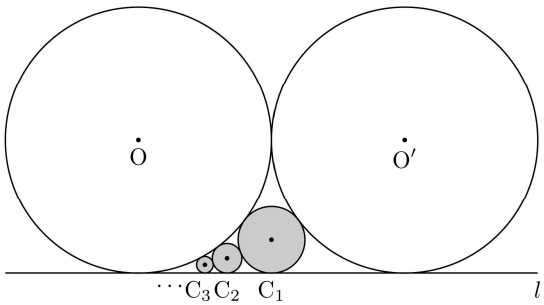
$$\lim_{h \to 0} \frac{(1+h)^2 f(1+h)-(1-5h)^2 f(1-5h)}{h}=6$$

을 만족시킬 때 실수 a의 값을 찾으시오. (단, a는 상수)

12. 이차함수 $y=x^2(x \geq 0)$의 그래프와 세 개의 직선 $x+y=2$, $x+y=12$, $x-y=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찾으시오.

K 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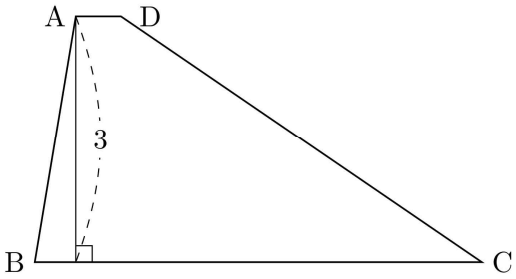
13. 직선 l에 접하는 원 O와 원 O′의 반지름의 길이는 4이다. 또한 원 O와 원 O′는 그림과 같이 서로 외접한다. 원 C_1을 원 O와 원 O′과 외접하고 직선 l에 접하는 원으로 정하고, 자연수 n에 대하여 원 C_{n+1}을 원 O와 원 C_n과 외접하고 직선 l에 접하는 원으로 정하자. 자연수 n에 대하여 a_n이 원 C_n의 반지름의 길이일 때, $\sum_{n=1}^{16} \frac{1}{\sqrt{a_n}}$의 값을 찾으시오.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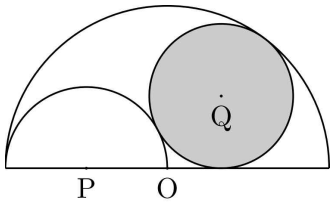
III. 서술형 문제 14와 15의 풀이 과정을 답안지에 쓰시오(각 문항 8점).

14. 그림과 같이 $\overline{AD}//\overline{BC}$ 이고 높이가 3인 사다리꼴 ABCD가 있다. $\overline{AB}$의 중점과 $\overline{CD}$의 중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를 x라 하자. 또 두 대각선 $\overline{AC}$와 $\overline{BD}$의 교점을 G라 할 때 점 G를 지나면서 $\overline{AD}$와 평행한 직선이 사다리꼴 ABCD의 두 변과 만나 생기는 선분의 길이를 y라 하자. $x-y=2$이고 $xy=3$일 때, 사다리꼴 ABCD의 넓이를 찾으시오.



K ARTS

15.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반원 O 안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반원 P가 놓여 있다. 두 반원과 직선 OP에 모두 접하는 원 Q의 반지름의 길이를 찾으시오.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예술사과정 신입생 모집
미술원 건축과 2차

작문 및 실기

수험번호		성 명		감독관 확인	

아래 제시된 지문은 미국의 예술가 Sol LeWitt(1928-2007)의 작업방식을 설명한 글의 일부이다.

지문

Because of the possibilities for multiplication inherent in the grid form, a basic and seemingly unlimited vocabulary was at LeWitt's disposal. In 1966 he began to work in serial form and produced multipart pieces of finite order but infinite complexity. The first serial piece, *Serial Project No. 1 (ABCD)*, composed of four sets of nine sections, was based on placing one form within another, with variations, in two and three dimensions. Progression moved from the delicate tracery of squares and rectangles on a grid base to the gradual integration of solid shapes, until the final set of block forms stood in solemn grandeur. The following year he exploited the numerous variations in three-dimensional open and closed cubes in as many as sixty-three different examples. In another important serial piece of 1974, *Variations of Incomplete Open Cubes*, he assembled 122 variations on the linear structure of a cube; here the piece progressed from the fundamental three-bar form to the penultimate one of eleven bars (twelve completing the cube). The viewer becomes fascinated and intrigued with the task of mentally filling in the missing bars along the course of the planned progression. LeWitt's interest in repetition led him to subtly refine the placing of a cube inside a larger cube. In his *Cubes with Hidden Cubes* one sees five identical solid cubes on five flat bases. Only from the markings on the bases of the area of the successively smaller cubes can one guess that there may actually be fifteen cubes in this five-part piece! In effect, only the first cube is empty. Inside the other four are one, two, three, and four cubes, respectively.

[Legg, A. (Ed.). (1978). Sol LeWitt. Museum of Modern Art.]

disposal: 배치, 배열 / variation: 변화, (~의) 변형 / tracery: (직선과 곡선으로 된) 장식 무늬
solemn: 엄숙한 / penultimate: 끝에서 두 번째의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Sol LeWitt은 위 글에 언급된 1974년 작업 *'Variations of Incomplete Open Cubes'* 에서 정육면체의 모서리들을 일부만 사용해서 미완성 정육면체를 구성하는 원리를 실험하였다. 별도의 용지에 제공된 이미지는 넘어지지 않고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미완성 정육면체를 만드는 122가지의 방법 중 일부이다.

<실기문제 1: 두 장의 실기 답안지 중 첫 번째 장을 이용>

주어진 이미지 및 지문을 참고하여 '7 part pieces'에 해당하는 미완성 정육면체의 가능한 형태를 모두 작도하시오.

- 미완성 정육면체의 형태는 예시 이미지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함.
- 수평으로 회전하여 포개지는 형태는 같은 것으로 간주함.

<실기문제 2: 두 장의 실기 답안지 중 두 번째 장을 이용>

첫 번째 장에 작도한 형태들 중 3개를 선정해 자유로운 방식으로 배치하고, 그 공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자세히 그리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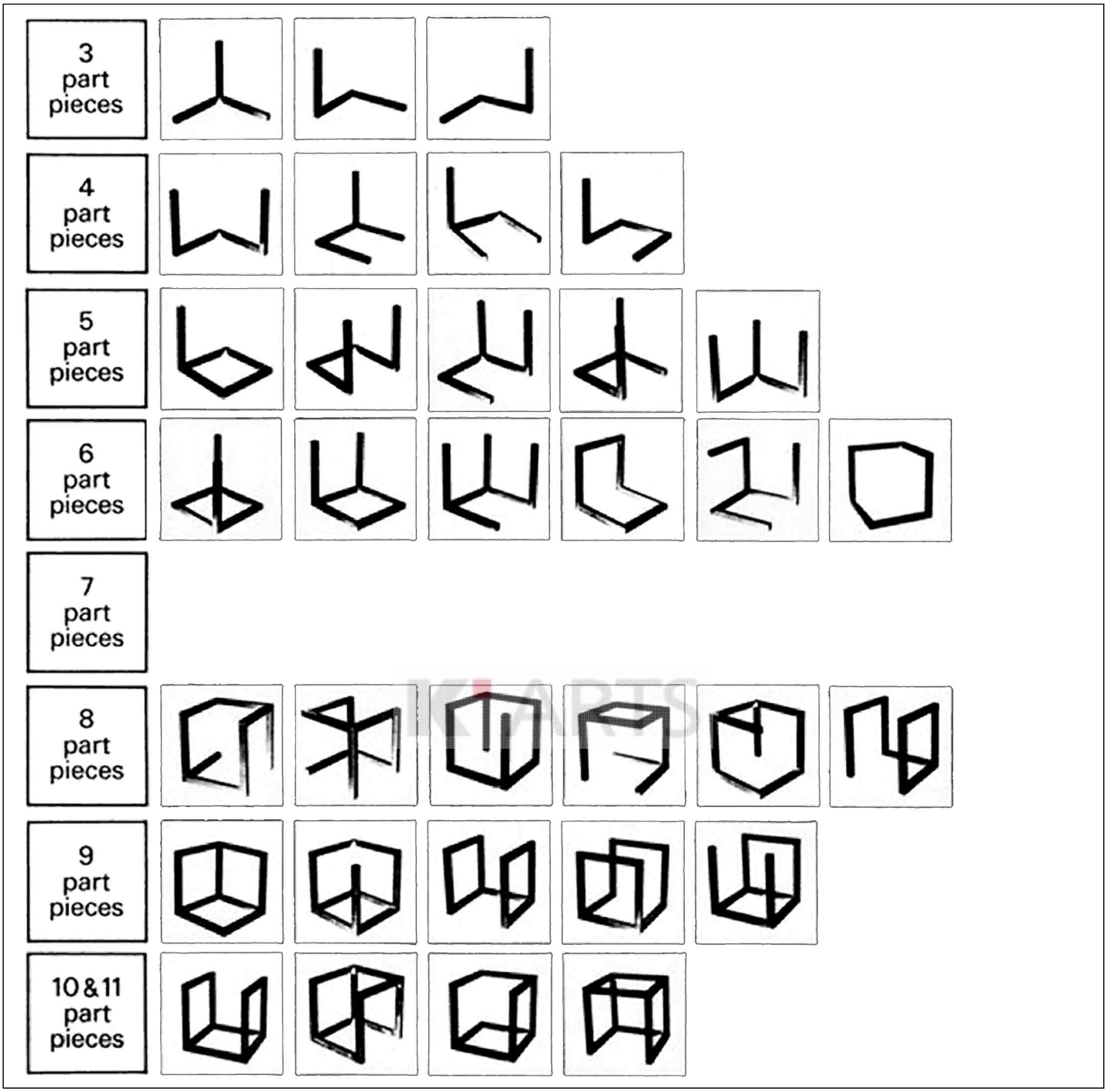
<작문문제: 제공된 작문 답안지를 이용하여 총 1,000자 이내로 작성>

첫 번째와 두 번째 실기문제를 풀이한 순서를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K ARTS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Variations of Incomplete Open Cubes' (일부)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예술사과정 신입생 모집
미술원 미술이론과 2차

논 술

수험번호		성 명		감독관 확인	

<문제 1>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를 1년 만에 미술관에서 만나기로 했다. 아래에 제시된 단어를 한번 이상 이용하여 그 친구를 만나러 가는 마음을 설명하시오. 제시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음. (300자 이내/ 10점)

노트북, 줄넘기, 망원경, 클라우드, 메모지, 주전자, 노란색

<문제 2>
아래의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바야흐로 팝이 레트로에 환장하고 기념행사에 열광하는 시대다. 밴드 재결성과 재결합 순회공연, 헌정앨범과 박스세트, 기념 페스티벌과 명반 라이브 공연 등등으로 왕년의 음악은 해가 갈수록 융숭한 대접을 받는 듯하다. 혹시 우리 음악문화의 미래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건, 자신의 과거가 아닐까? 지나치게 비관적인 말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상상하는 각본은 대재앙이 아니라 점진적 쇠퇴에 가깝다. 팝은 그렇게 종말을 맞는다. 대학초년에 죽도록 들었던 앨범을 한 트랙씩 충실히 재연하는 공연의 값비싼 입장권과 함께 팝은 종언을 고한다.

한때 팝의 신진대사는 에너지로 넘쳤으나, 해가 갈수록 지금의 맥박이 희미해지는 데는 2000년대들어 팝의 현재가 아카이브에 저장된 기억이나 묵은 스타일을 빨아먹는 레트로 록 등 과거로 북적이게 된 탓이 크다. 2000년대는 자신에 충실하기 보다 지난 여러 시대가 동시에 펼쳐지는 레트로 시대가 됐다.

'레트로'라는 말에는 특정한 뜻이 있다. 그 말은 음악, 의상, 디자인 등에서 페스티시와 인용을 통해 의식적, 창의적으로 표현된 시대 양식 물신주의를 뜻한다. 엄밀히 말해서 레트로는 예술애호가, 감식가, 수집가 등 거의 학문적인 지식과 날카로운 아이러니 감각을 갖춘 사람 몫이다. 그러나 오늘날 레트로는 훨씬 넓은 의미에서 비교적 최근에 흘러간 대중문화라면 뭐든지 가리키는 말이 됐다.

물론 과거에도 흘러간 시대에 집착하는 움직임은 있었다.

우리 문화에서 레트로 마니아는 이제 지배적인 위상을 넘어 임계점에 다다른 느낌마저 든다. ①문화가 노스텔지어에 매달려서 앞으로 나갈 힘을 잃은 걸까, 아니면 ②문화가 더는 앞으로 나가지 않아서 결정적이고 역동적이던 시대에 노스텔지어를 느끼는 걸까?

1) 오늘날의 레트로 문화에 대한 저자의 결론 중 밑줄 친 ① 또는 ②의 입장 중 하나의 견해를 선택하거나, 제3의 견해를 제시하여 레트로 마니아를 평가하시오. (300자 이내/ 20점)

2) 2022년 유행한 대중음악이나 영화,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 중 앞으로 20년 또는 30년 후 다시 재유행하게 될 예가 있다면 어떤 것이 될지 하나를 예상하여 선택하고, 그것이 재유행하게 되는 이유를 위의 글을 참고하여 설명하시오. (300자 이내/ 10점)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3>

아래의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가) 세계는 좁아져 있다. 숨을 곳이 없다. 초연결사회의 참된 도덕성은 단절의 능력에서 발견된다. 얼마나 깊이, 진지하게, 창조적으로 끊어질 수 있는가? 끊어짐과 연결됨 사이에 생동감 있는 리듬을 설계할 수 있는가? 공동체의 우상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은둔을 삶에 지친 사람의 고상한 판타지로 보지 말고 하나의 세계관, 감수성, 삶의 형식으로 바로 볼 것. 단순한 생명의 기쁨을 회복하고 싶은 자는 은둔을 꿈꾼다.

도처에 은둔지가 형성되고 있다. 인간이 인간을 견디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서로의 살, 냄새, 얼굴, 말, 현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시대. 인간은 서로에 대해 지쳤고, 서로를 지겨워한다. 두려워한다. 사람들 사이에 광대한 사막이 형성되었다. 그 사막은 여러 형태의 기술적 장치들에 가로질러진다. 21세기의 인간은 자신의 인간성을 의심하고, 경계하고, 적시한다. 인간중심주의의 자명성이 파열되고 있다. 이는 병리학적 현상이라기보다는 문명사적 변동의 한 징후이다. 우리는 스스로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첫 번째 세대다. 모더니티의 잠에서 깨어난 충혈된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는 인간의 광폭한 힘을 발휘하여 변형시켜놓는 중생의 고통의 극장이다. 인간의 인간성에 자기-제한을 가할 것, 인간의 인간성을 스스로 비워낼 것. 해방이 아니라 포기, 전진이 아니라 이탈, 사교가 아니라 은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아니라, 어떤 경우 연결하고, 어떤 경우 연결을 끊는 동물, 은둔할 줄 아는 동물이다. 누구는 커피로 은둔하고, 누구는 음악으로, 누구는 산책으로, 누구는 철학으로 은둔한다. 성격으로, 질병으로, 작품으로, 광장에, 대중 속에 은둔하는 자들도 있다. SNS로 은둔하는 사람이 있는 한편, SNS로부터 은둔하는 사람도 있다. 은둔지는 발명될 수 있다. 은둔지를 구축하는 능력이 참된 창조력이다.

은둔 속에서 리얼리티는 스펙트럼처럼 분열되어 나타난다. 생활의 총체성은 상실되지만, 삶의 특정 부분을 구제할 수 있다. 가령 어떤 영역에서의 실패는 단지 그 영역에서의 실패일 뿐이다. 그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타격을 입는 것은 아니다. 어떤 영역에서의 성공은 오직 그 영역에서의 성공일 뿐이다. 그 성공이 인생 전체를 멋지게 만들지는 않는다. 이런 자명한 사실이 불굴의 현실감을 띠는 것은 오직 은둔지에서다.

고독은 혼자 있는 자의 심정이 아니라, 욕망하지 않는 것과의 연결을 끊은 자가 확보한 자유다. 이 자유는 새로운 연결 가능성에 뿌리내린다. 우리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을 때 더 많이 연결될 수 있다. 나는 은둔한다. 고로 그(것)들이 생존한다.

(나) 이제는 하루 동안 사람을 직접 만나 대화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비대면 생활에 많은 이들이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배달 앱'으로 주문·결제하면 배달원과 마주치지 않고도 음식을 받을 수 있다. 줌(Zoom)과 같은 화상 회의 도구를 활용하면 굳이 얼굴을 맞대지 않아도 수업을 듣거나 일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심지어 운동·취미 모임 등도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진행 가능하다. 우리는 방 안에서 누구와 접촉하지 않고도 너끈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애석하게도, 비대면 생활의 편리함은 사회적 관계와 유대감 등을 잃고 얻은 대가다. 기술이 모두를 촘촘하게 연결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역설적으로 개개인이 분리되면서 각자가 느끼는 외로움은 심화됐다. 고립의 문제를 개인적 우울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위험의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 외로움은 정치적으로 극단주의를 조장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올 뿐 아니라 경제에도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다.

외로움은 친구·연인·가족 등 친밀한 관계가 단절된 느낌이나 우울·불안·쓸쓸함 등에만 그치지 않는다. 세계화, 불평등 심화, 경제위기, 기술 발달 그리고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외로움의 형태는 달라졌다. 외로움은 이제 정치인과 정치로부터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 일터에서 소외된다는 느낌, 사회 기준만큼 소득을 벌지 못해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힘없는 존재라 무시받는 느낌까지 아우른다. 이러한 단절은 사회적 신뢰를 쌓기 어렵게 만든다. 보통 외로움을 측정할 때 '당신은 얼마나 외롭나'를 직접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댈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되는지,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는지 등을 묻는다. 이는 외로움을 정의할 때 신뢰가 부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는 의미다. 결국 고립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는 건 요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까. 온라인, 특히 소셜 미디어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동시에 다양한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만나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최근에 '메타버스'가 각광을 받았지만 이렇게 디지털 교류가 활성화하는 걸 독려하는 분위기를 재고해 봐야 한다. 특히 소셜 미디어가 중독적으로 설계돼 있어 미성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점을 고려하면 정보기술(IT) 기업에 적극적으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카카오·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지금보다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소셜미디어 사용량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또래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호소하는 연구 결과, 소셜미디어 사용량을 플랫폼당 하루 10분으로 제한했더니 외로움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 등이 있다. 고립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독성을 따지면 21세기 담배산업과 같은 소셜 미디어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일이 필요하다.

1) 위에서 말하는 은둔과 고립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설명하시오. (500자 이내/ 20점)

2) (가) 또는 (나) 중 하나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400자 이내/ 10점)

<문제 4>

별도로 제시된 글의 제목은 <인간은 왜 유명해지고 싶어 하는가>이다. 이를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1) 이 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300자 이내/ 10점)

2) 필자가 주장하는 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필자의 입장에 대해 반박하시오 (500자 이내/ 20점)

K ARTS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4>의 별도 제시글

이집트의 피라미드, 바빌론의 공중정원,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 올림피아의 제우스 상, 할리카르나소스의 마우솔로스 영묘, 로도스의 거상,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지금은 피라미드 외에 대부분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지만 고대 그리스인이 꿈에 그리던 7대 불가사의들이다. 너무나도 위대한 이 기적들은, 나약한 우리들과 달리 영원히 존재할 것으로 숭배되었다. 하지만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은 인간을 닮아가는 것일까? 병으로 죽고 시간에 잊히는 우리의 운명처럼 이 불가사의들은 지진, 해일, 전쟁으로 서서히 사라져 갔다. 하지만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 신전의 운명만은 조금 달랐다. 리디아Lydia 영토 에페소스에 지어진 이오니아 최대 건축물 아르테미스 신전. 130미터가 넘는 길이에 18미터 높이의 기둥들로 장식된 이 초대형 건축물은 대리석으로 지어진 첫 그리스 신전이기도 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간에게 고의적으로 '살해'당한 건물이었다.

기원전 356년 7월 21일, 에페소스의 젊은 청년이 신전에 불을 지른다. 1,000도가 넘는 불에 대리석은 이산화탄소를 내뿜기 시작했고, 대리석은 메마른 각질처럼 신전의 피부에서 떨어져나갔다. 불은 밤새도록 탔고, 다음 날 아침 여신의 신전이 있던 자리에는 잿더미만 남았다. 분노와 좌절로 거리에 주저앉은 에페소스 시민들에게 방화범은 말한다. 돈도, 권력도, 증오도 아니었다고. 단지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알리고 싶었다고. 다른 인간들처럼 세상의 기억에서 이름 없이 사라지기 싫었다고.

인간은 왜 유명해지고 싶은 것일까? 유명세를 통해 직접적인 이익이 커지기 때문일까? 철갑 같은 피부나 날카로운 이빨이 없는 인간은 집단생활을 통해 서로 협력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 대부분의 집단에는 계급이 있고, 계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고 권력자는 가장 좋은 것을 먹고, 원하는 모든 여성들과 자식을 가질 수 있다. 나머지 구성원들은 최고 권력자의 행동을 잘 파악해야 한다. 집단 내 생존을 위해 권력자의 미세한 표정을 구별하고 기억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가 웃으면 안심해도 되지만 화를 내면 바로 긴장해야 한다. 마음에 안 들면 내 숨통을 끊을 수도, 나를 집단 밖으로 몰아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락한 동굴이나 마을에서 쫓겨난 인간이 며칠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스인들은 그래서 사형보다 오스트라키스모스ostrakismos, 즉 도편추방을 더 두려워했고, 피렌체에서 쫓겨난 단테는 '베아트리체'라는 추상적인 안식처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으려 했다. 비행기만 타면 세계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오늘날조차, 만약 고향으로 영원히 되돌아올 수 없는 조건이라면 선뜻 해외로 나가기 힘들 것이다.

인간 사회는 유명인과 무명인으로 나뉜다. 내가 관심을 주어야 하는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보다 더 많다면, 나는 공동체의 배경인물이며 약자이다. 힘, 노력, 재능, 운 덕분에 내 행동에 관심 가지는 사람이 내가 관심 주는 사람보다 더 많다면, 나는 공동체의 주인공이며 사회적 강자이다. "커서 뭐가 되고 싶어?"라는 질문에 대부분 아이들이 "유명해지고 싶어요"라는 대답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유명해지고 싶다'라는 희망은 사실 '살아남고 싶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기 때문이다.

힘이 있는 사람은 대개 유명하다. 하지만 유명하다고 항상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아르테미스 신전 방화범은 사형당했고, 비틀즈 멤버 존 제논을 암살한 범인으로 영원히 이름을 남기려 한 광팬 마크 채프먼Mark Chapman은 여전히 감옥 안에 있다. 힘은커녕 목숨과 자유조차도 지키지 못한 것이다. 혜택이나 이득 없는 유명세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니 그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왜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에게 그렇게도 관심이 많은 것일까?

유명 연예인이 길에 나오면 교통이 마비되고, 그들의 시시콜콜한 사생활은 대중의 최고 관심사가 된다. 영국인의 36% 정도가 병적일 정도로 유명인에게 집착한다고 한다. '유명인 숭배증 Celebrity Worship Syndrome, CWS'이라는 공식 병명이 생길 정도다. 마를린 먼로, 찰리 채플린, 제임스딘…. 할리우드의 전설 같은 스타들이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관심과 오늘날 케이팝K-POP 아이돌에 대한 집착이 우리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될까? 스타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유명인들의 사생활에 무관심하다고 공동체에서 추방될 리 없다. 아이돌에게 집착한다고 그들의 명예와 부가 내게 오는 것도 아니다. 스타의 지위는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른 해석을 해봐야 한다. 우리가 유명인에게 집착하는 것은 그들을 통해 세상과 나의 삶이 설명되기 때문이다?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인간에게 언제나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그 자체였다. 갑자기 숲에서 나타난 맹수들에게 가족이 끌려가고, 하늘에서 쏟아진 비에 온 세상이 바다로 변하기도 한다. 어제까지 뛰어다니던 아이가 피를 토하고 쓰러져 더 이상 숨을 쉬지 않고, 먹을 것이 풍성하던 세상이 꽁꽁 얼어버려 굶어죽기도 한다. 세상은 잔인한데 우리는 잔인함의 이유를 모른다. 이유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면 내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겁난다. 불확실함은 우리를 두렵게 한다.

최초의 인간에게 우주는 카오스였다. 원인과 이유가 없는 '참을 수 없는 무질서'였다. 그러던 어느 날 획기적인 생각이 떠올랐다. 석기시대의 아인슈타인이라고 할까? 그의 뇌 신경회로망 사이로 유혹 하나가 바이러스처럼 퍼지기 시작한다. 만약 나, 너, 우리들 외에 다른 존재가 존재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들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원인이라면? 해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늑대들'에게 쫓겨 쉬지 않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도망 다니는 것이라면? 바람은 세상 끝에 사는 거인들의 거친 숨이라면? 천둥은 아버지 같은 하늘신의 노여움이라면?

이해할 수 없었던 자연 현상 하나하나에 보이지는 않지만 익숙한 존재들을 연결시키는 순간 무질서의 카오스chaos는 질서의 코스모스cosmos로 변한다. 천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아버지의 노여움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렵게 얻은 코스모스는 언제든 두려운 카오스로 되돌아갈 수 있다. 만물의 원인인 신들의 동기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왜 하늘신은 노하는 것이고, 바다신은 무엇 때문에 태풍을 만드는 것일까?

해답은 하나뿐이다. 신들에게 인간과 동일한 동기를 부여하면 된다. 제우스는 예쁜 여자만 보면 정신 못 차리는 늙은이고, 아레스는 바람피우는 아내를 떠나지 못하는 멍청한 싸움꾼이며, 포세이돈은 큰형에게 기죽어 사는 만년 둘째이다. 올림포스의 신들이야말로 막장드라마에 출연한 연예인 같은 존재였고, 그들의 대한 소문과 집착과 관심을 통해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신들만의 코스모스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만물의 원인을 설명하는 방식은 그리스 신들의 유치한 드라마 외에도 다양했다. 그런 점에서 고대 이집트 왕 아크나톤Akhnaton은 어쩌면 인류 최고의 혁신자였는지 모른다. 그는 선포한다. 우주에서 단 하나의 신만 존재한다고. 뱀, 늑대, 사람을 닮은 수백, 수천의 신들이 아닌 태양신 '아톤' 하나뿐이며, 만물의 모든 원인이 바로 그 유일신에게 있다고. 자신의 이름을 '아톤의 종', 즉 '아크나톤'으로 바꾼 그는 우주의 모든 질서를 단 하나의 존재만으로 설명하려 했다. 단 하나의 존재를 통해 만물의 질서를 받아들이기에 인간의 두려움은 너무나 컸던 것일까? 아크나톤의 기억은 이집트 역사에서 지워졌고, 우리는 여전히 올림포스의 신과 같은 스타군을 통해 세상의 질서를 이해하려고 한다.

양자우주론과 진화론이 만물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해도, 인간에게는 커다란 질문 하나가 남아 있다.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현대 과학이 제시하는 코스모스 식 질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는 내면의 카오스에 아무런 답을 줄 수 없는 듯하다. 하지만 배경인물에 불과한 우리와 달리 유명인은 사회의 강자이며 공동체의 주연급 인물이지 않는가? 어쩌면 그들의 삶을 통해 내 삶의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이 불안한 내 마음의 코스모스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우리는 인생의 주인공 같아 보이는 타인의 삶을 통해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하찮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설명하려는지도 모른다.

방화범을 처형한 에페소스 관료들은 결정한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여신의 신전에 불을 지른 그의 이름을 인류의 기억에서 영원히 지워야 한다고. 방화범의 이름을 언급하는 행위는 사형으로 처벌하겠다고. 하지만 역시 역사란 아이러니의 다른 이름일 뿐인 것일까? 에페소스 관료 그 누구의 이름도 우리는 모르지만, 방화범의 이름은 잘 알려져 있다. 헤로스트라투스Herostratus.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